

중기부 '그린벤처 프로그램'에 290개사 지원...경쟁률 14.5:1

서면평가·토론식 심층평가 거쳐 최종 선정
R&D·사업화자금 최대 3년·30억원 내외 지원

-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2:00
-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2:00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할 '그린벤처' 프로그램이 14.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신청기업들은 서면평가 통과 이후 토론식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접수를 마감한 '2020년도 그린벤처 프로그램'에 중소기업 290개 사가 접수해 14.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의 평균경쟁률인 4.4:1(2019년 기준)의 3배를 훌쩍 넘기는 수치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린벤처 신청 현황(기술분야별) >

구분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수송기계
기업 수 (개)	31	19	28	67	28
비율 (%)	10.7	6.6	9.7	23.1	9.7
합계	첨단그린 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수산 식품 및 시스템	환경보호 및 보전
290	9	19	6	14	69
100	3.1	6.6	2.1	4.8	23.8

< 그린벤처 신청 현황(업력별) >

구분	합계	3년 미만	3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기업 수 (개)	290	52	87	82	22	27	20
비율 (%)	100	17.9	30.0	28.3	7.6	9.3	6.9

< 그린벤처 신청 현황(매출액 규모별) >

구분	총합계	20억 미만	2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300억 미만	300억 이상 500억 미만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기업 수 (개)	290	144	90	39	10	6	1
비율 (%)	100	49.7	31.0	13.4	3.4	2.1	0.3

이번 프로그램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해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그린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05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은 전용사업을 통해 기술개발(R&D)과 사업화 자금을 최대 3년에 걸쳐 30억원 가량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그린벤처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보호·보전이 23.8%(69개), 그린 정보통신기술(IT)이 23.1%(67개), 신재생에너지가 10.7%(31개) 순으로 지원이 많았다.

업력별로는 신청기업의 절반 정도가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이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20억원 미만 기업이 49.7%에 해당했다.

해당 기업들은 향후 서면평가 이후 토론식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에 이른다.

선정평가는 신청당시 기업들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진행하고, 통과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R&D)과 사업화 계획을 보완해 토론식 심층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토론식 심층평가는 산학연 전문가, 사업화 전문가가 참여하며, 국민평가단도 참여해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의견도 제시하는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가 선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린벤처 국민평가단은 오는 19일부터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을 받는다.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 윤세명 기술개발과장은 "이번에 선정되는 그린벤처 기업이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그린뉴딜'을 이끌어 갈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예산으로 긴급 추진하는 만큼 신속하게 선정절차를 마무리해 9월중에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ellyfish@newspim.com